

'고비 넘으니 또 악재'...SSG, 험난한 6월 맞는다

등록 2021.06.02 10:33:31



[인천=뉴스시스]김병문 기자 = 29일 오후 인천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리그 kt wiz와 SSG 랜더스의 경기, 4회초 2점을 내준 SSG 선발투수 박종훈이 덕아웃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4.29. dadazon@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김희준 기자 = 고비를 넘었더니 또 악재가 찾아왔다. SSG 랜더스가 선발 투수 2명이 빠진채로 6월을 시작한다.

SSG의 토종 에이스 박종훈(30)과 외국인 투수 아티 르위키(29)가 동시에 전력에서 이탈했다.

지난달 28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 선발 등판한 박종훈은 5회말 갑작스럽게 강판됐다. 지난주 팔꿈치에 피로감을 느껴 등판 일정을 2~3일 정도 늦춘 박종훈은 상태가 나아져 마운드에 올랐으나 통증을 호소했다.

박종훈은 정밀검사 결과 팔꿈치 인대손상이 발견됐다.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은 박종훈은 2일 미국으로 떠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켈란 조브 정형외과 소속의 닐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부상 부위에 대한 검진을 받는다.

SSG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수술 소견이 나오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상가상 르위키도 부상을 입었다.

4월 16일 인천 KIA 타이거즈전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낀 뒤 내복사근 미세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에 매달린 르위키는 5월 29일 대전 한화전에서 43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지만,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2회말 교체됐다.

르위키는 검사 결과 대흉근 염좌 진단을 받은 상황이다. SSG는 잇단 부상으로 단 4경기 등판에 그친 르위키를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체할 투수를 찾고 있다.

만약 박종훈이 수술대에 오른다면 장기 이탈이 불가피하다. 토미존 서저리로 불리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으면 대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재활에 매달린다. 수술을 받으면 내년 시즌 초반에도 등판이 힘들다.

수술이 아닌 재활로 결정되더라도 팔꿈치 인대에 문제가 있는 만큼 빠르게 복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르위키의 대체 선수를 구해도 최소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격리 해제 후 실전 감각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

교체 대신 르위키의 회복을 기다려도 한 달이 걸린다. 르위키는 일단 4주 동안 상태를 지켜봐야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다.



[인천=뉴스시스]고승민 기자 = 4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 대 SSG 랜더스 경기, 1회초 SSG 선발투수 르위키가 역투하고 있다. 2021.04.04. kksmm99@newsis.com
SSG는 시즌 초반 온갖 부상 악재에 시달렸다.

르위키가 4월 중순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에이스로 점찍고 영입한 월터 폰트가 4월말 목에 담 증세를 호소해 5월초 열흘 이상 등판하지 못했다.

시즌 초반 SSG 마무리 투수로 뛴 김상수는 지난달 7일 웨이트트레이닝 도중 치아를 다쳤다.

4월말에는 주전 2루수 최주환이 햄스트링 미세 손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SSG는 위기를 버텨내면서 선두를 질주했고, 부상병도 속속 복귀하면서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폰트는 5월 13일 복귀했고, 김상수도 지난달 27일 다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최주환도 5월 22일 돌아왔다.

하지만 한숨 돌리려던 찰나에 다시 한 번 대형 악재가 터졌다.

그나마 폰트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4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자책점 2.42로 활약하는 것이 SSG에는 작은 위안이다.

SSG는 대체 선발로 투입했던 오원석, 정수민을 일단 선발 로테이션이 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선발 한 자리가 빈다. 김원형 SSG 감독은 양선률, 김정빈을 대체 자원으로 꼽았다.

시즌 초반 슬한 위기를 버텨낸 SSG가 다시 한 번 고비를 넘을 수 있을까. SSG가 험난한 6월을 맞이하며 진짜 시험대에 오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